

<b>배포일시</b>	2019. 6. 18.(화) 09:00 (총 9매)	<b>보도시점</b>	<b>2019. 6. 18.(화) 10:00</b>
<b>담당부서</b>	국제협력담당관실	<b>담당자</b>	과장 이용섭 사무관 송병현
		<b>전화번호</b>	02-2181-0372 02-2181-0380

## 기상청장, WMO 총회 참석 및 주요 성과

- 집행이사 진출 및 양자협력 강화 -

-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6월 3일(월)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**제18차 세계기상총회** 주요 활동 내용 및 성과를 발표했다.
  - 이번 세계기상기구(WMO) 총회는 전 세계 193개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이 참가하여 4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,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, 조직개편을 결정하였다.
  
-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총회에서 국제사회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와 기상기술 공여로 **집행이사**로 당선되었다.
  - 우리나라는 제15차 세계기상총회(2007년)에서 집행이사에 진출한 이후 집행이사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으며, 집행이사국의 임기는 4년으로, 19차 총회(2023년) 때까지 활동하게 된다.
  
- 또한, 김 청장은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△세계기상기구(WMO)-코이카(KOICA)-기상청(KMA) 삼자 업무협약(MOU) 추진 제안 △국제기상 개도국 협력을 위한 한국 신탁기금 활용사업의 성과 공유 △기상청 전문 인력의 세계기상기구 진출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전문성 확대 및 지원을 약속했다.

□ 총회와 더불어 △영국 △카타르 △방글라데시 △나이지리아와 각각 협력 회의를 진행하였다.

- 영국기상청과 △수치모델(UM) 파트너십 △영향예보 △해양예보의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,
- 카타르기상청과는 △2022년 카타르 월드컵 지원 △역량 개발 전문가 파견 확대 및 양국 기상협력 현안을 논의하였으며, 하반기에 △한국에서 양해각서를 체결(연장)하기로 합의하였다.
- 특히, 방글라데시와는 사업합의서를 체결하여 기상기술 수출 기반을 확대하였으며, 나이지리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서아프리카 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.

□ 김종석 청장은 “이번 세계기상기구(WMO) 기상총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기상기술 공여를 높게 평가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인하였고, 집행이사국으로 당선된 만큼 앞으로도 국제기상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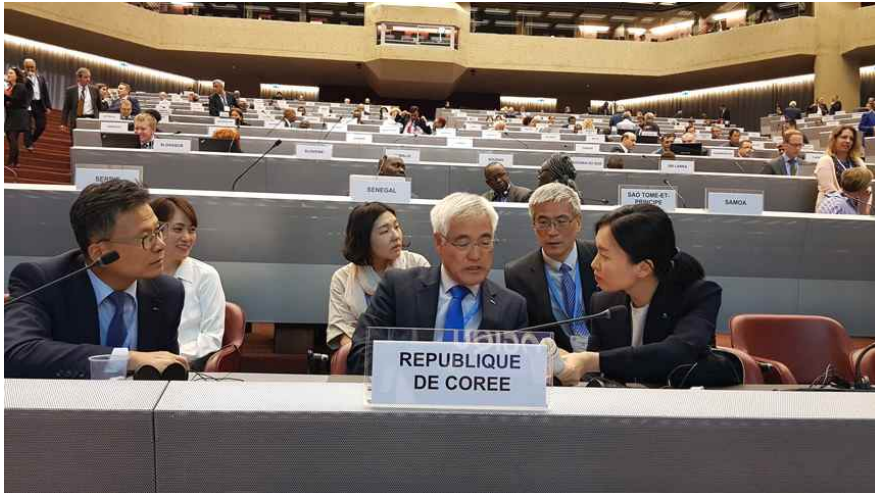
- 붙임 1. 김종석 기상청장, 세계기상기구(WMO) 집행이사 당선
2. 세계 기상청간 협력 강화로 기상기술 고도화
  3. 기상기술 수출 확대 및 국제협력 지평 확장

## **붙임 1 김종석 기상청장, 세계기상기구(WMO) 집행이사 당선**

- 2023년 WMO 총회까지 정책 결정 등 중요 역할 수행 -

- 이번 ‘제18차 세계기상총회’에서 김종석 청장이 집행이사로 당선되었다.
  - 이번 집행이사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지역 1위로 당선되었으며, 2023년 제19차 기상총회 때까지 집행이사직을 수행하게 된다.
  
- 특히 이번 아시아 지역에서 집행이사 1위 당선은 그동안 개도국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와 기상기술 공여로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상과 공헌이 높아진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.
  - 기상청은 그동안 각국의 지지를 요청해 왔으며, 외교부(주 제네바 대표부)와 함께 세계기상기구(WMO) 회원국 정부에게 후보의 역량과 비전을 홍보해왔다.
  
- 세계기상기구(WMO) 집행이사회는 각종 사업과 예산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핵심 집행기구로 193개 회원국 중 37개국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지역별로 배정된 의석수에 따라 각국 기상청장이 위원을 맡는다.
  - 이번 총회에서 아시아지역 위원으로는 △대한민국 △중국 △일본 △이란 △인도 △아랍에미리트(의장) 총 6개국이 선출되었으며, 앞으로 4년간 지역대표로 활동하게 된다.

□ KMA 대표단 사진



| 세계기상총회(6.3~14., 스위스 제네바) 참석중인 기상청대표단 |



세계기상총회 회의장에서 WMO 사무총장 Petteri Taalas와 만나는 김종석 청장

## 붙임 2 세계 기상청간 협력 강화로 기상기술 고도화

- 김종석 청장은 영국 기상청장 Penny Endersby 와의 만남에서 수치모델(UM) 파트너십, 영향예보, 해양예보의 협력 방안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에 대해 관심사를 교환하였다.
- 특히 영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영향예보(impact based forecast) 및 해양기상 분야에 대해 우리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.
- 한국과 영국은 2012년 기상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치예보(UM 개발 파트너십), 계절예측, 예보관 훈련교육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 성과를 내고 있다.
- 한-영 양국은 2020년 한국이나 영국에서 양자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필요시 화상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

| 한-영 기상청장 회의(6.12.(수) 13:00-13:30, 스위스 제네바) |

- 김종석 청장은 카타르 기상청장과 만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지원, 해양기상 등 기상협력, 전문가 파견 확대 등 양국의 기상협력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
- 김종석 청장은 카타르 기상청장 Abdulla Mohamed Al Mannai 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 기상청 기상전문가의 카타르 기상청 재 파견, 카타르 직원 대상 교육훈련 실시, 올림픽기상 지원 경험 공유 등 기상기후의 과학적 공동 연구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였다.
-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양해각서를 올 하반기에 갱신하기로 합의하고 올 하반기에 한국에서 한-카타르 양해각서 연장 체결식을 갖기로 합의하였다.
-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한-카타르 양국 협력은 카타르 기상청의 기상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 기상기술의 세계 진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” 라며, “향후 카타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상청의 우수 전문 인력 파견과 카타르기상청 예보관/장비유지보수 전문가 등 연수, 올림픽기상 지원 경험 등 기상 기술전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”고 밝혔다.
- 한국과 카타르는 2013년 7월 양국 기상청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, 교육 훈련과 분야별 전문가(4명)를 카타르 기상청에 파견한 바 있다.
  - 이들 파견 전문가들은 3년~5년 카타르 기상청에 근무하면서 카타르의 관측, 예보, 기후, 정보통신 분야의 선진화 추진에 큰 도움을 주었다.
  - 또한, 카타르 기상청 직원들은 한국기상청에서 주관하는 예보관 훈련, 레이더 활용 및 기상관측검교정과 훈련 등 4건의 교육훈련 과정 참여를 통해 관련 기술을 전수받았다.



| 한-카타르 기상청장 회의(6.14.(금) 09:00-09:30, 스위스 제네바) |

### 붙임 3 기상기술 수출 확대 및 국제협력 지평 확장

- 김종석 청장은 Shamsuddin AHMED 방글라데시 기상청장과 한국-방글라데시간 사업합의서를 체결하였다.
- 이 사업은 국제개발협력(ODA)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기상재해 경감을 위해 천리안위성 2호기의 수신·분석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이다.
- 총 30억 규모로 3년간('19~'21) 추진될 예정이며, 사업 내용은 △ 천리안 위성 2호기 수신·분석시스템과 정보망 구축, △ 위성시스템 운영 및 자료 분석 초청연수 등이다.
- 이 사업은 기상재해로 인한 수원국의 사회·경제적 손실 예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,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상기술의 해외보급을 통해 국내 기상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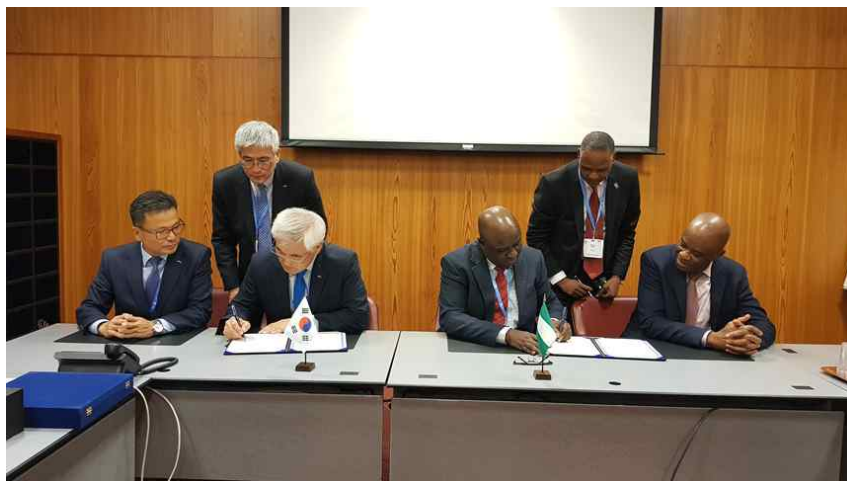


| 한-방글라데시 기상청장 (6.11.(화) 09:00-09:30, 스위스 제네바) |



□ 한-나이지리아 양국 간 기상협력 약정 체결.

- 김종석 기상청장은 6월 12일, 스위스 제네바 세계기상총회 참석 중 Prof. Sani Abubakar Mashi, 나이지리아 기상청장과 양국 기상청간 기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.
-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△ 기상서비스 △ 교육훈련, 역량강화, 기상연구 △ 정보통신기술 개발 협력 등이다.
- 이번 MoU 체결은 양국간 기상기술 협력 관계와 더불어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국제협력업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, 해당 지역에서의 우리나라 기상 기술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

| 한-나이지리아 협력약정 체결(6.12.(수) 09:00-09:30, 스위스 제네바) |